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웨딩사진의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1900년~2010년까지)

201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

이 연 지

# 웨딩사진의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1900년~2010년까지)

김 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  
이 연 지

# 인준서

이연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논문개요

웨딩은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회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며 웨딩사진은 공식적인 표현의 절차과정 또는 의미를 기록한 사진이다.

평생 단 한번 밖에 없는 중요한 결정의 의식인 만큼 그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웨딩에 관한 기록을 남겼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사진으로 웨딩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기록을 남기는 정도를 벗어나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으로까지 이어져 웨딩산업에서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며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정리가 미흡하여 용어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뚜렷한 국내 웨딩사진의 변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웨딩사진의 발생과정과 국내웨딩사진의 표현요소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진이 발명되기 전 시대에는 초상화로써 기록을 남겼는데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초상화는 사회특정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로 사회의 지위와 부를 상징하게 되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귀족과 왕족이 무너지고 중간계층이 사회주류로 떠오르면서 사회구성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 최상류층에게 독점적인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해왔던 초상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이 열망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어서 좀 더 값싼 초상 이미지 제작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진의 발명에 대한 동기를 이끌어 냈다.

사진은 1822년 프랑스의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 1837년 루이 자끄 망데 다게르, 윌리엄 헬리 혹스 탈보트가 카메라 옵스큐라에 새겨진 이미지를 화학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진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좀 더 손쉽게 초상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끝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초상사진은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일생에 한번 만들기 힘든 초상화에 비해 다가가기 쉬운 사진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것으로 자신의 초상화 뿐 만이 아니라 가족사진, 웨딩사진으로 소중한 대상 또는 기억에 이르기까지 촬영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웨딩사진은 상업사진에 속해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큐멘터리적인면과 순수사진적인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웨딩사진에 많은 변화를 미치는 표현요소로는 조명, 앵글, 렌즈, 포즈, 배경 및 소품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이전까지 웨딩사진이 대중들에게 일반화 되지 않았으며 사회의 상류층만이 결혼식 당일을 기념하여 촬영하였다. 특히 왕족의 결혼을 기념하여 촬영한 웨딩사진이 신문상에 보도됨에 따라 대중들에게 결혼식 후 이를 증명하는 웨딩사진 촬영이 의미 있는 일임을 알리게 되었다. 1951년에서 1970년에는 결혼식 당일 예식이 끝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원판사진이 상품화되었으며 대중들에게 정착화 되었다. 1971년에서 1990년에는 국내웨딩시장에 컬러사진의 등장과 웨딩스냅사진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며 1991에서 2000년에는 웨딩리허설촬영의 확대와 이로 인한 웨딩전문스튜디오의 등장, 비디오촬영의 확대가 됐다. 2001년이후로 디지털카메라와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의 개발은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화 함으로써 더욱 한국웨딩사진산업이 성장하였다.

이 처럼 시대별 특징적요소와 함께 시대별 표현요소를 연구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제1장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1-3 용어 정의 .....	2
제2장 웨딩사진의 발생배경 .....	4
2-1 웨딩사진의 개념 .....	4
2-2 웨딩사진의 선행연구 .....	4
2-3 웨딩사진의 발생 .....	5
2-4 웨딩사진산업 현황 .....	14
제3장 웨딩사진의 예술적 측면과 표현요소 .....	19
3-1 웨딩사진의 예술적 측면 .....	19
3-2 웨딩사진의 표현요소 .....	21
제4장 국내 웨딩사진의 발전과정 .....	25
4-1 1950년 이전(웨딩사진의 등장) .....	25
4-2 1951년~1970년(웨딩사진의 상업화) .....	28
4-3 1971년~1990년(웨딩사진의 일반화) .....	31
4-4 1991년~2000년(웨딩사진의 전문화) .....	40
4-5 2001년~현재까지(웨딩사진의 디지털화) .....	50

제5장 결론 및 제언 ..... 5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그림 목 차

[그림1] 알도브란디니가의 혼례.....	7
[그림2] 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부인의 초상(아르놀피니의 약혼).....	7
[그림3] 앙리4세와 마리 드 메디시스의 결혼에 대한 우의화.....	8
[그림4]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결혼식.....	9
[그림5] 스티븐 베킹엄과 메리 콕스의 결혼식.....	9
[그림6] 1697년 12월 7일 루이 드 프랑스, 부르고뉴 공작과 마리 아델라이드 드 사부아의 결혼 .....	9
[그림7] 나폴레옹 1세와 마리루이즈의 결혼식 행렬.....	10
[그림8] 가족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제롬 보나파르트와 프레데릭-카트린드 부템베르그의 결혼서약.....	10
[그림9]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	11
[그림10] 평생도 .....	11

## 표 목차

[표1] 인물사진스튜디오의통계.....	15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진산업의 분류.....	16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16
[표4] 원판촬영구성표.....	46
[표5] 웨딩스냅촬영구성표.....	46
[표6] 웨딩시장의시대별 발달사.....	55

# 사 진 목 차

[사진1] 이우왕자의 웨딩사진	27
[사진2] 영친왕의 웨딩사진	27
[사진3] 덕혜옹주의 웨딩사진	27
[사진4] 1920년대 웨딩사진	27
[사진5] 1910년경의 웨딩사진	28
[사진6] 1934년의 웨딩사진	28
[사진7] 1953년 문00 노00	31
[사진8] 1950년대 원판사진	31
[사진9] 1950년 박정희 육영수	31
[사진10] 박00 문00의 원판사진 1971.05.11	36
[사진11] 박00 문00의 흑백웨딩스냅사진 1971.05.11	37
[사진12] 박00 문00의 컬러웨딩스냅사진 1971.05.11	37
[사진13] 이00 문00의 원판사진 1978.05.11	37
[사진14] 이00 김00의 원판사진 1979.04.07	38
[사진15] 이00 김00의 웨딩스냅사진 1979.04.07	38
[사진16] 이00 문00의 원판사진 1983.03.06	38
[사진17] 이00 문00의 웨딩스냅사진 1983.03.06	39
[사진18] 방00 장00의 웨딩리허설사진 1993년	47
[사진19] 웨딩리허설사진 1997년	47
[사진20] 웨딩리허설사진 1998년	48
[사진21] 웨딩리허설사진 1999년	48
[사진22] 방00 장00의 원판사진 1993년	49
[사진23] 오00 이00 리허설촬영앨범 2001년	52
[사진24] 한00 마00 리허설촬영앨범 2004년	52

[사진25] 박00 박00 리허설촬영앨범 2007년.....53  
[사진26] 아00웨딩스튜디오 샘플리허설촬영앨범.....53

# 1장. 서론

## 1-1.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 사진은 인간의 삶에 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용되지 않는 순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와 밀접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륜지대사’라고 표현되는 결혼에 있어서 사진의 이용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현대 결혼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행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결혼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에 반비례하게 웨딩 사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웨딩사진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 결혼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웨딩사진은 이러한 결혼에 대한 증거물로서 오늘날 웨딩사진이 없는 결혼식이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이다 (간선미, 2000). 때문에 국내 웨딩사진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도심이나 거리의 간판에서 어렵지 않게 웨딩전문스튜디오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 정리가 미흡하여 용어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뚜렷한 웨딩사진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리조차 전무한 상태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웨딩사진의 발달배경과 웨딩사진의 예술적 측면과 표현요소, 한국 웨딩사진의 변화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많은 웨딩사진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특징적 요소 및 표현요소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시대적 흐름은 웨딩사진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세분화 하여 1950년 이전, 1950~1970년, 1971년~1990년, 1991년~2000년, 2001년~현재 까지로 나누었다.

웨딩사진의 선별 기준은 국내에 사진이 들어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에서 촬영된 웨딩사진 중 연구 목적에 맞는 사진을 선정하여 모았으며 사진은 서양식 결혼에 촬영된 웨딩사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논문 및 관련 서적,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연구하며, 연구자가 웨딩사진시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다. 그리하여 국내 웨딩사진의 시대적 흐름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3. 용어정의

#### 1) 원판사진

본래 사진용어에서 ‘원판’이란 1장의 원판에서 여러 장의 양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원판’의 뜻이 웨딩사진분야로 넘어 오면서 결혼식 당일에 예식 끝난 후 오신 하객분들과 함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을 뜻하여 사용되어졌다.

#### 2) 웨딩스냅(Snap)사진

본래 ‘스냅’이란 사진촬영기법 중의 하나로 연출을 가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사체를 실감나게 또한 인상적으로 찍는 기법이다. 이런 맥락으로 결혼식 진행과정에서 신랑·신부와 하객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하는 웨딩사진을 뜻하여 사용되어졌다.

#### 3) 웨딩리허설사진

‘리허설’이란 연극, 음악, 방송에서,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

이라는 뜻으로 결혼식 며칠 전 신랑·신부가 결혼예행 연습으로 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야외 또는 실내셋트장에서 촬영하는 사진으로 ‘연출 사진’, ‘야외촬영’, ‘실내촬영’등 다양한 명칭 불리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웨딩리허설사진’ 한가지로 명명하겠다.

## 2장. 웨딩사진의 발달 배경

### 2-1. 웨딩사진의 개념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사진이 발명되었을 당시는 사진의 예술적 표현이나 풍경사진보다 인물의 초상사진 기록이 우선했다. 그만큼 사진은 인물에 대한 기록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만큼 인물사진은 사진 탄생의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진의 중심이 되는 분야이다. 인물사진은 사진술의 발달과 함께 대중화가 되면서 초상의 범위를 넘어서 사람의 모든 일상이 촬영대상이 되는 인물사진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인상사진 분야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상사진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상사진 스튜디오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인상사진은 찍히는 대상에 따라 종류를 나누면 웨딩사진, 베이비사진, 프로필사진, 가족사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인상사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루는 것은 웨딩사진이다. 웨딩사진은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사회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공식적인 표현의 절차과정 또는 의미를 기록한 사진이다.

### 2-2. 웨딩사진의 선행연구

직접적인 웨딩사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웨딩사진에 올바른 방향에 관한 연구’(김병목, 1996)와 ‘생활기록사진의 효과적 표현에 관한 연구-웨딩사진을 중심으로’(신상식, 1996) 두 논문이 있으며 대부분 웨딩사진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표현요소를 연구하였다. 학술지연구로는 ‘Wedding Photography(결혼사진)에 대한 연구’(이상규, 2004)가 있으며 웨

딩사진 속의 시대상 및 사진 기술적면을 연구하였다.

웨딩사진이 직접적 연구대상이 아닌 간접적인 연구는 많이 되어져 왔는데 크게 인물사진과 웨딩산업을 연구할 때 웨딩사진에 관한 연구도 같이 되어졌다.

인물사진의 한 부분으로 김현중(2008), 김명관(2011)가 인물사진의 연구 중 웨딩사진에 관한 간단한 정의 및 현상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그 외에 김윤정(2004), 홍미숙(2007), 이일식(2010)은 웨딩사진을 언급한 수준의 정도이다.

웨딩산업중 웨딩사진에 대한 연구는 김경임(2007), 김도윤(2011), 이윤옥(2009), 정민아(2008), 최순희(2010), 최진은(2007)등은 웨딩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웨딩시장의 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서술한 정도이다.

이처럼 웨딩사진의 직접적인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는 웨딩사진의 시대적변화에 따른 특징적요소 및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3. 웨딩사진의 발생

웨딩사진 또한 인물사진의 하나로써 인물사진은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초상화로써 기록을 남겨왔다. 그러므로 웨딩사진의 발생기원을 보기 위해 초상화부터 살펴 볼 필요성이있다.

‘초상화’라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된 초상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조각,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등에 의한 개인의 묘사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경우, 개인의 묘사를 엄격히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묘사가 그 인물과 닮아 있는 것, 즉 초사성이 요구된다. 즉 초상에서 요구 되는 것은 이목구비와 신체 등의 특징이 묘사와 더불어 표정, 몸짓, 자세 등을 넣은 정신의 표현이다(칸바이시 츠네미치, 1993). 지젤 프로인트(Giséle Freund)는 초상화를 “한 인간이 자기 개성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자하는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전수연, 2002). 다시 말해 초상화는 초상을

남기는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흔적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의 초상화는 절대적인 숭배의 도구로 사용 되었으며 중세 시대의 초상화는 오직 신에 대한 존경과 찬미를 나타내기 위해 초상이 창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춘 ‘인문주의’<sup>1)</sup>로 새로운 인식과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초상화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후 초상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람이 중심이 된 사실적인 작품의 예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근대적 현실의식의 성립과 시민적 개인주의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명성의 중시와 더불어 세련된 장식과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는 궁중 취미로부터 초상화의 수요가 높아져 갔다.

두 남자가 만나 평생을 함께 하는 의식인 웨딩도 기억하고 싶은 장면으로 그래서 간직하고자 했다. 가장 오래된 웨딩에 대한 회화는 ‘알도브란디니가의 혼례’로 BC 4 ~ BC 2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웨딩장면을 그린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프레스코 벽화이다.<sup>2)</sup>

초상화의 발달맥락과 마찬가지로 웨딩에 관한 초상화는 르네상스 발생 이후로 왕성하게 나타났다. 15세기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의 ‘아놀르피니의 결혼’, 16세기 대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le Vieux)의 ‘농가의 결혼식’, 앙브루아즈 뒤부아(Ambroise Dubois Ambroise Dubois)의 ‘앙리4세와 마리 드 메디시스의 결혼에 대한 우의화’, 17세기 앙투안 디유의 ‘1697년 12월 7일 루이 드 프랑스, 부르고뉴 공작과 마리 아텔라이드 드 사부아의 결혼’ 페테르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프랑스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시스의 결혼’, 18세기 피에르 폴 프뤼등(Pierre Paul

1)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세계는 신이 지배한다는 신본주의에 반대하며,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람 중심의 생각에 뿌리를 두는 정치, 사회사상이다.

2) 249×94cm. 1606년 로마의 언덕 에스퀼리노에서 발굴되어 그 후 오랜 세월 알도브란디니가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렇게 불린다. 1818년 교황 피오 7세가 사들인 후로 바티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풍속화인데 여신 또는 우의적 인물도 나타나며, 발달된 그리스 회화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1]알도브란디니가혼례-작가미상(BC4~2C추정)

Prud'hon)의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결혼<나폴레옹과 마리-루이즈의 결혼에 관련한 우의>’,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의 ‘스티븐 베킹엄과 메리콕스의 결혼식’, 작가미상의 ‘1732년 베르사이유 예배당에서 거행된 콩티 왕자와 샤프트르 양의 결혼’, 19세기 장뵘티스트 레노남작(Jean-Baptiste Regnault baron)의 ‘가족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제롬 보나파르트와 프레데릭-카트린드 부르템베르그의 결혼서약’, 시어도어 로빈슨(theodore robinson)



[그림2] 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아르놀피니의 약혼) (The Arnolfini Portrait) -안 반 아이크(JANVAN EYCK)-(15세기)

의 ‘The wedding maech’, 에티엔 바르텔레미 가르니에(Etienne-Barthelemy Garnier)의 나폴레옹 1세와 마리 루이즈의 결혼식 행렬 등 이다.

[그림2]는 15세기 안반아이크(JAN VAN EYCK)의 ‘아르놀피니의 결혼’으로 ‘회화적 결혼 증명서’로서 유명한 초상화이다. 플랑드르의 부유한 상업도시 브뤼주에서 성공한 이탈리아 루카 상인 지오바니 아르놀피니가 그의 부를 과시하시 하고 경건한 결혼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한 초상화이다.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그림3]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시스의 결혼에 대한 우의화(Allégorie du mariage d'Henri IV et Marie de Médicis)-앙브루아즈뒤부아(Ambroise Dubois)-16세기

대에 초상화가 가지는 상징성과 웨딩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신랑·신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초상화이다.

[그림3]과 [그림4]는 그림 속에 의미가 있는 웨딩 초상화이다. [그림3]은 1600년 12월 17일,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치(Marie de Médicis)가 결혼하면서 주문한 그림이다. 그림에서는 이들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동맹에 대한 은유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속 여성은 왼손에 피렌체를 상징하는 붉은 백합을 들고 있으며 한 아이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흰 백합을 오른손에 들려주고 있다. 그녀가 두르고 있는 푸른 망토 또한 테두리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림4]은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결혼-나폴레옹과 마리 루이즈의 결혼의 우의’는 나폴레옹 1세와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루이즈의 결혼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식에 사용된 그림으로 현재 미리 촬영해 놓은 웨딩리허설사진을 결혼식 날 입구에 세워 놓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제정을 정착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조제핀 황후와 이혼하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란츠 2세의 딸 마리 루이즈 공주와 1810년 4월 1일 결혼을 하였다. 그리

사고를 지닌 상인계급의 아르놀피니가 자신의 값비싼 재산으로 채워진 실재를 통해 부를 드러내면서, 부인 지오바나체나미와의 신실한 결혼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이 작품은 중세 말, 물질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유럽인 부부와 이러한 주문자의 의도를 이해한 화가 얀 반 에이크가 사실주의 회화로 재현한 15세기 플랑드르 상인의 결혼식장면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지위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박시은, 2010). 이 시



[그림4]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결혼 (나폴레옹과 마리-루이즈의 결혼에 관련한 우의)  
(Noces d'Hébé et d'Hercule. Allégorie relative au mariage de Napoléon et de Marie-Louise.) - 피에르 폴 프뤼동(Pierre Paul Prud'hon) - 18세기

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와 제우스와 헤라의 딸인 헤베 여신의 결혼을 나폴레옹과 마리 루이즈의 결혼에 빗대고 있다. 가로로 긴 화면에는 신화적 인물들이 늘어서 있어 고대 신전의 프리즈 장식을 연상시킨다. 가운데에는 헤베로 나타난 마리 루이즈와 헤라클레스로 나타난 나폴레옹이 서로 손을 잡고 있고, 그 아래로는 고대의 결혼 제단이 보인다. 이들의 결합은 여신 유노 프로누바가 관장하고 있다. 나폴레옹(헤라클레스) 뒤에는 미네르바 여신과 혼인이 햇불을 들고 있는 푸토, 풍요, 명예 등의 우의가, 마리 루이즈(헤베) 뒤로는 삼미신과 무사이등의 올림포스의 신들이 서서 이 결합을 목격하고 있다. 신화의 이야기와 실제의 사건을 결합시켜 프뤼동은 나폴레옹과 마리 루이즈의 결합에 신성한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림6] 1697년 12월 7일 루이 드 프랑스, 부르고뉴 공작과 마리 아델라이드 드 사부아의 결혼 (Mariage de Louis de France, duc de Bourgogne et de Marie-Adélaïde de Savoie, 7 décembre) - 앙투안 디유 - 17세기



[그림5] 스티븐 베킹엄과 메리 콕스의 결혼식-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18세기



[그림8] 나폴레옹 1세와 마리 루이즈의 결혼식 행렬 (Le Cortège du mariage de Napoléon Ier et de Marie-Louise) - 에티엔 바르텔레미 가르니에 (Etienne-Barthelemy Garnier)-19세기

[그림7] 가족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제롬 보나파르트와 프레데릭-카트린드 부르템베르그의 결혼서약 - 장 밥티스트 레노 남작 (Jean-Baptiste Regnault baron) - 19세기

[그림5] ‘1697년 12월 7일 루이 드 프랑스, 부르고뉴 공작과 마리 아델라이드 드 사부아의 결혼’, [그림6] ‘스티븐 베킹엄과 메리 콕스의 결혼식’, [그림7] ‘나폴레옹 1세와 마리 루이즈의 결혼식 행렬’, [그림8] ‘가족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제롬 보나파르트와 프레데릭-카트린드 부르템베르그의 결혼서약’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결혼과정의 한 장면을 초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지금의 웨딩스냅사진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결혼에 관한 초상이 그려졌는데 대표적으로 ‘평생도(平生圖)’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을 들 수 있다. ‘평생도(平生圖)’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골라 그린 풍속화로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의 일생 동안의 중요한 의례나 관직에 나아간 선비가 거치게 되는 여러 벼슬살이의 장면 등을 담았으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는 국왕이나 왕세자의 혼사가 있을 때 가례도감을 설치하여 모든 일을 거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 엮어 훗날의 전거로 남긴 것으로 글뿐만 아니라 회화로써도 기록을 남기었다.



[그림9]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18세기)



[그림10] 평생도(연도미상)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웨딩에 관한 초상이 그려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웨딩에 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기록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바탕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또는 부유한 상인들만이 가능하였다. 초상화의 소유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부와 권력의 상징물로서 중산계층의 접근을 배타적으로 거부했다(최봉림, 2003년).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상업 자본이 발달하면서 귀족계층의 신분구조가 붕괴되고, 중간계층이 사회구성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도 과거 수세기 동안 최상류층에게 독점적인 상징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던 초상화에 대한 열망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열망은 모든 계층에게 이어져 값싼 초상화의 보급이 현안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초상화를 제작할 방법으로 미니어처 초상화(miniature portrait)<sup>3)</sup>나 실루엣(silhouette)초상기법<sup>4)</sup>, 자동전사식 초상제작기<sup>5)</sup>, 카메라

3) 미니어처 초상화는 분갑이나 펜던트 뚜껑 모양의 작은 초상화로 미니어처 초상화가 생겨나면서 부재중인 사람이나 가족, 친구, 애인의 초상을 항상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미니어처 초상화는 귀족사회에서 대단히 유행하였다고 한다. (지젤 프로인트, 성완경역, 『사진과사회』, 1999년, p14)

4) 루이 14세 시대에 개발된 실루엣 초상기법은 검정색 광택지에 친구들의 프로필을 가위로 오려내

루시다(camera lucida)<sup>6)</sup>가 사용되었다.<sup>7)</sup> 그러나 초상화의 완성도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수공적인 제작의 훈련이나 기술의 제한에서 벗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서의 초상 이미지 제작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진의 발명을 이끌어냈다.

1822년 프랑스의 조셉 니세포르 니엥스(Joseph-Nicéphore Niépce)가 카메라 옵스큐라<sup>8)</sup>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1837년 루이 자끄 망데 다게르(Louis-Jacques-Mandé Daguerre)는 은도금한 동판 위에 생성시킨 요오드화은에 노광을 주어 수은으로 현상하고 식염수로 정착시켜서 보이지 않는 잠상을 현상해 가시상을 만드는 다게레오타입을 발명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윌리엄 헬리 폭스 탈보트(William Henry Fox Talbot)도 감광처리된 종이를 사용하여 칼로타입을 발명하였다. 카메라 옵스큐라에 새겨진 이미지를 화학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진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김효산, 2001).

사진술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를 곧바로 초상을 제작하는데

---

는 것으로 수많은 손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다. 실루엣은 인물을 드러내는 추상적인 형식으로 데생의 특별한 습작이 필요 없으며 제작에 시간이 많이 안 들고 가격이 저렴해 궁정 무도회장으로부터 장터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축제가 있는 곳마다 성행하였으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졌다.(보몬트 뉴홀, 정진국역, 『사진의 역사』, 열화당, 1987년, p14)

- 5) 질 루이 크레티앙이 발명한 기계. 서로 연결된 평행사변형들이 조작에 따라 수평면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장치의 조작 방법은 잉크를 묻히지 않은 뾰족한 끝이 전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며 반복함으로써 두 끝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로 전자의 데생을 그대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모델에서 장치까지의 거리와 선을 그리는 뾰족한 끝의 위치에 따라 실물대의 크기뿐만 아니라 원하는 적당한 크기의 형상을 그릴 수 있었다. (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에, 정진국역, 『세계사진사』 까치, 1993년, p19-20)
- 6) 조준기를 통해서 소재의 윤곽과 세부를 일광 속에서 따라 그릴 수 있는 장치로 19세기에 울러스턴이 제작했고 뒤이어 파리의 광학자 슈발리에 형제의 손으로 더욱 다듬어졌다. (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에, 정진국역, 『세계사진사』 까치, 1993년, p19)
- 7) 李桂榮.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Julia Margaret Cameron)의 초상 사진 연구, 2006년, p8
- 8) 라틴어로 ‘어두운 방’라는 뜻으로 캄캄한 방에 작은 구멍을 뚫려 있으면 반대 측면에 외부 정경이 좌,우,위,아래가 바뀌어서 상이 맺히는 현상으로 17-19세기의 화가들이 초별그림 제작에 이용한 미술보조도구.(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에, 정진국역, 『세계사진사』 까치, 1993년, p18)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용된 렌즈의 밝기가 어둡고 화학적으로 처리된 은판들과 종이의 낮은 감광도 때문에 초상사진의 노출시간이 밝은 햇빛 아래서 태양을 향해 눈을 크게 뜬 상태로 20분~30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상에 대한 열망으로 사진술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1840년 말엽, 다게르의 렌즈보다 22배나 더 밝은 개량 렌즈인 페츠발(Petzval)렌즈의 개발과 옥소를 대신해서 할로겐으로 옥화하여 표면 처리한 감광판의 제작은 노출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 시켰다. 기술적 개선이 따르자, 많은 사람들의 초상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분동안 앉아 있는 것은 고역이어서 의자에 앉은 사람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머리받침대가 발명되기도 했다. 이 후 1841년에는 노출시간이 몇 십초로 단축되었다(장원다발, 1991).

1848년에는 알부민 원판이 니엵스 드 생 빅토르(Niepce de Saint-Victor)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블랑카르 에브라르(Blanquart Evrard)에 의해 산업화되었고, 1851년에는 프레데릭 스코트 아처(Frederic Scott Archer)에 의해 콜로디온 습판방식이 발명되었다. 습판방식은 감광도가 좋았기 때문에 노출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으며, 복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은 높이고 가격은 낮아졌다.

또한 습판방식을 이용한 8매의 초상사진을 한 장의 원판에 촬영할 수 있는 명함판(Cart-de visite)사진이 앙드레 아돌프 디데리(Ander Adolphe Disderi)에 의해 1854년 11월에 특허를 받음으로써 초상사진이 보다 대중적이고 대량으로 유통될 체계가 갖추게 된 것이다. 명함판 사진은 초상사진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많은 상업적인 초상스튜디오의 등장도왔다. 초상스튜디오의 내부도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배경은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연극 무대처럼 설계되어 고객을 유치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명함판 사진이 유럽전역에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특권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초상사진을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했다.

초상사진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였다. 사진은 혼자만의 모습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등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례식, 성찬식, 결혼식, 학교 그리고 군대 등에서도 애용되었다.

이렇게 사진술은 발전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었다. 그러나 1880년 경, 두 가지 기술의 완성으로 개선되었다. 젤라틴 유제의 개발과 롤 필름의 발명, 그리고 코닥카메라의 개발이었다. 이로써 간단하고 가볍고 다루기 쉬운 카메라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촬영하는데 나섰다(김효산, 2001).

일생에 한번 만들기 힘든 초상화에 비해 싼 가격과 선명도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으로 사진의 초상화 뿐 만이 아니라 가족사진, 웨딩사진으로 촬영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웨딩사진의 최초 촬영 컷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웨딩사진이 대중들에게 파고들어 갔음을 알게 해 준다.

이로써 웨딩사진산업은 어느 한순간에 생산자에 의해 생겨난 계획된 산업 분야가 아닌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웨딩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 2-4. 웨딩사진산업의 현황

### 2-4-1. 웨딩사진산업의 규모

전국 웨딩스튜디오에 관한 인물사진 스튜디오에 관한 통계, 웨딩산업 전체적인 통계는 있었으나 웨딩사진산업의 정확한 통계를 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그러나 웨딩산업 중 대표되는 산업으로 규모가 큰 것만은 확실하다.

[표 1] 인물사진스튜디오의 통계

	사업체 수		종사원수	
	2005	2010	2005	2010
인물사진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585	7,170	14,818	14,188

출처:통계청 고시 2010년 산업통계표

본 논문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건수와 웨딩정보업체의 자료에 의한 2가지로 대략적인 웨딩사진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혼인건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혼인건수는 99년 35만 건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연평균 32만건(통계청 2004~2011년)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웨딩컨설팅인 드남웨딩(www.denam.com)에서 고객 중 매년 표본 500쌍을 대상으로 15년간 결혼예산의 변화를 조사한 설문자료로 결혼예산의 변화추이에 대한 자료를 집계했다. 여기서 2011년 평균 결혼예산을 보면 웨딩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웨딩패키지<sup>9)</sup>의 금액이 262만원이다. 웨딩패키지에서 웨딩사진이 차지하는 금액은 대략 50~60%정도로 131~157만원으로 볼 때 대략적인 웨딩사진산업의 연평균 시장 규모는 4~5천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2-4-2. 산업분류

웨딩사진업을 통계청에서 2007년 12월 28일 고시(2008년 2월 1일 시행)한 제 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분류표를 보면 [표 2]과 같다.

9)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사진을 합쳐서 웨딩패키지라고 부른다.

[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진산업의 분류

M(70~73)	73(중분류)	733(세분류)	73301(세세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출처:통계청 고시 '산업표준산업분류표(9차개정)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표

분류코드	73301(세세분류)
분류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p>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사진 및 비디오촬영도 포함한다.</p> <p>&lt; 예 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상화 촬영(개인)</li> <li>·행사 비디오촬영</li> <li>·여권 사진촬영</li> <li>·학교 사진촬영</li> </ul> <p>&lt; 제 외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전조각식 사진촬영기 운영(96999)</li> </ul>	
색인어	웨딩사진촬영, 가족사진업, 개인영상필름촬영업, 결혼비디오촬영, 관광사진제작(가두사진업), 비디오촬영(결혼 회갑등), 사진관운영(인물용), 사진촬영서비스(인물), 영상사진촬영(영화제외;개인용), 영상필름촬영(개인대상)

출처:통계청 고시 '산업표준산업분류표(9차개정)

자료에 의하면, 웨딩사진의 촬영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별도의 분류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인물사진과 영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4-3. 국내 웨딩스튜디오 영업의 형태

한국 웨딩사진 산업영업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웨딩사진 촬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웨딩스튜디오와 스튜디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드레스까지 연출할 수 있는 토탈웨딩스튜디오의 형태이다.

전문웨딩스튜디오는 스튜디오로서의 기능만을 극대화한 전문스튜디오로 웨딩촬영에 필요한 메이크업과 드레스는 신랑신부가 다른 업체에서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토탈웨딩스튜디오는 ‘토탈웨딩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진촬영 뿐만 아니라 드레스,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는 부케, 택시도, 비디오촬영과 코디네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각각은 개성 있는 분야지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공동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토탈패키지의 장점은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모두를 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여러 상품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선택은 쉬우나, 다만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을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김경임, 2007).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형태는 서울권과 지방권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부록:지역별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참조> 서울권은 전문웨딩스튜디오 형태로 지방권은 토탈웨딩스튜디오의 형태이다. 영업형태의 지역별 차이가 서울권과 지방권으로 나뉘는 이유는 웨딩컨설팅의 성업정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웨딩 컨설팅은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라이프스타일, 직업, 소득, 주거형태, 예식비용 등 모든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신랑·신부가 예식장 섭외부터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신혼여행, 한복, 예물, 예단까지 결혼 전반에 걸친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김경임, 2007).

웨딩컨설팅이 전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서울권은 웨딩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샵이 분업화 될 수 있는 밑바탕으로 각 업체들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특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신랑·신부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반면 웨딩컨설팅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권은 웨딩촬영, 메이크업, 드레스가 한 업체에 소속된 토탈웨딩스튜디오의 형태를 띠어 신랑·신부가 여러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편리성이 강조되어 있다.

## 3장. 웨딩사진의 예술적 측면과 표현요소

### 3-1. 웨딩사진의 예술적 측면

웨딩사진은 상업사진에 속해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은 다큐멘터리적인면, 웨딩리허설사진은 순수사진적인면을 가지고 있다.

#### 3-1-1. 다큐멘터리적 측면

다큐멘터리 사진이란 기록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풍속적으로 파악하거나 사회현상이나 사건 등을 기록하는 사진이며 특히 픽션을 피하고 현실에 충실한 태도가 요구되는 사진분야를 말한다(유경선, 1995). 이러한 다큐멘터리사진은 단순한 보도사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진촬영자의 주관을 포함하는 사진이라 할 수 있다(김병목, 1996). 다큐멘터리 사진은 정직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한 사진가의 사물에 대한 관찰과 해석 능력에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큐멘터리 사진은 진실의 기록이면서 동시의 사의의 결과물으로써, 정보전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로써 사진의 특성상 기록성과 현장성을 중요시할 때, 사진은 더욱 진실에 근접해 간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인간의 삶 중에서 사회, 역사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 웨딩사진이 다큐멘터리적 측면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다.

본래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에 그 큰 뜻을 담고 있는 설명적인 사진을 추구하였으며, 기록성을 위주로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조명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웨딩사진에 있어서는 신랑·신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때로 미적인 면도 중시 여겨 촬영 되어야 한다. 또한 신랑·신부에 대한 사진가의 개인적 관점, 사진가의 사진적시각과 주제의식을 실어 촬영한 사진이다.

거짓 없는 현실, 꾸밈없는 사실의 기록이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그 출발에서부터 사회적인 현상 및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다.

다큐멘터리사진에서 보이는 일상의 묘사와 사실적인 현실의 표현, 그리고 사진구성의 평면성 등은 흔히 다큐멘터리사진을 가장 사진적인 양식으로 분류하게 한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건과 인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재구, 2010).

### 3-1-2. 순수사진적 측면

순수예술사진이란 아무런 목적 없이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표현을 위한 사진을 말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대중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사진의 한 분야이다. 웨딩사진의 경우에는 순수예술사진의 이런 측면과는 정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업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촬영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에 충실한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의 사진이지만 서로의 관계는 분명 있다. 즉 웨딩사진의 촬영자의 주관에 따라 분명 웨딩사진도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자가 상업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웨딩이란 소재를 가지고 사진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순수사진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사진의 결과를 보기 이전에 촬영자의 표현 주관에 따라 사진의 순수성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진이 마찬가지로 웨딩사진의 경우 분명 순수사진의 영역을 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 보다는 촬영자의 사진적인 시각과 표현

능력의 확대가 웨딩사진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김병목, 1996).

### 3-2. 웨딩사진의 표현요소

사진의 표현요소에는 카메라의 종류, 조명, 앵글, 렌즈, 콘셉트, 연출, 배경 및 소품, 리터칭 등이 있으나 이 중 웨딩사진 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표현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3-2-1. 조명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빛은 절대적이다. 빛은 주어진 피사체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빛이란, 자연광은 물론 인공광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빛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피사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 표현하기 위해 알맞은 광선을 적절히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명 방향에 따라 순광, 사광, 측광, 반역광, 역광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촬영 시 조명 방향 상태에 따라서 노출량에 변화가 생긴다.

조명은 크게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광은 태양에 의한 빛으로 우리가 늘 눈으로 익혀온 광선이기 때문에 자연광으로 찍은 사진은 자연스러운 느낌과 친근감을 준다. 그러나 자연광은 피사체의 밝기의 변화가 시간, 장소, 계절,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한 노출을 얻으려면 각기 그 조건에 따라 정확한 노출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자연광 아래서 신부의 얼굴과 하얀 드레스의 노출차이가 평균 4~8배 차이가 나며 역광의 경우는 하얀 드레스의 반사로 인하여 마치 보조광으로 사용하는 반사판을 이용한 것처럼 인물에 드레스 반사로 인한 노출차이는 2~4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노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정확한 노출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인공광은 자연광이 부족하여 촬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어지며 보통 해가

진 야외, 실내에서 촬영할 때 사용되어 진다. 인공광은 자연광에 비하여 그 밝기의 세기가 매우 약하여 자연광과 달리 피사체로 부터 광원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짐으로 피사체와 주조명과 보조조명등의 거리, 빛의 세기 등에 세심한 관찰과 노출값이 요구된다(신상식, 1996).

### 3-2-2. 앵글

사진에 있어서 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카메라의 위치다. 촬영 시 카메라의 위치가 상하, 좌우, 전후의 위치에 따라 피사체는 앵글의 변화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형상으로 변모하고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다.

카메라의 앵글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아이레벨(Eye level)이다. 수평각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시각으로 자연스럽고 부담감이 없으며 안정감이 있어 촬영의 기중이 되는 앵글이다. 둘째 로우 앵글(Low Angle)이다. 피사체의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서의 촬영각도로서 낮은 앵글은 웅장, 위대, 당당하며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표현으로 인물에 키가 작은 신랑의 경우 양각으로 촬영 했을 경우 보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로우앵글(Low Angle)은 원근감이 강조된다. 셋째 하이앵글(High Angle)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위치의 촬영 각도로 촬영되는 것을 말하며 객관성이 강한 설명적인 사진이 되는 경향이 있고 평온, 냉정, 안정 등의 인상을 강하게 표현한다. 하이앵글(High Angle)으로 촬영 되었을 경우 피사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경이 잘 보인다. 아무리 단순한 피사체라도 앵글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의 느낌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상에 따라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예술적·극적·심리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조셉v아셀리, 1986).

### 3-2-3. 렌즈

구도를 넓게 혹은 좁게 또는 일상적으로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은 렌즈인데 이 렌즈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피사체는 또 다른 의미의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다.

렌즈를 이용한 촬영효과는 크게 조리개에 의한 것과 렌즈의 종류에 의한 효과가 있다. 우선 조리개에 의한 촬영효과는 첫 번째 아웃 포커스이다. 아웃 포커스는 조리개를 개방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였을 때 피사체는 또렷하지만 피사체의 뒷배경은 뭉개져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을 부각시켜줄 때 용이하다. 두 번째 인 포커스이다. 인 포커스는 아웃포커스와 반대로 피사체의 앞의 배경이 뭉개져서 표현되는 것이다.

렌즈의 종류에 의한 효과는 첫 번째 표준렌즈이다. 표준렌즈는 인간의 시각에 가장 가까운 원근감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웨딩사진에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 망원렌즈이다. 망원렌즈는 왜곡현상이 적고 피사체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으며 아웃포커스를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렌즈로 피사체를 돋보이게 한다. 세 번째 광각렌즈이다. 광각렌즈는 그 광학적 특성상 원근감이 강조나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기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때문에 크고, 웅장함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 **3-2-4. 포즈**

웨딩사진의 표현요소에 있어 포즈는 신랑·신부의 행복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웨딩리허설촬영에 있어서 포즈는 다양하게 연출되는데 포즈에 따라 신랑·신부의 이미지가 틀려질 수 있다.

#### **3-2-5. 배경 및 소품**

웨딩사진에 있어 배경은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요소 중의 하나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배경에서 촬영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사진촬영 전 연출방향에 맞추어 장소를 검토한 후 선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품은 웨딩사진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웨딩 이미지에 대한 강조를 위해 사용된다.

## 4. 국내웨딩사진의 시대별 변화

국내웨딩사진의 각 시대별 변화를 2가지 요소로 크게 구분지어 살펴보고도 록 하겠다. 첫 번째로는 각 시대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요소와 그 시대 웨딩사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요소들 중에서 조명, 렌즈 및 앵글, 포즈, 배경을 중심으로 웨딩사진의 표현에 있어 중요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4-1. 1950년 이전(웨딩사진의 등장)

1950년 이전에는 국내의 사진이 도입단계로써 웨딩사진이라는 한분야로 산업화되지 못하였으며 일반 대중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힘들었다. 사진의 기술적 발달의 부족으로 사진촬영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

#### 4-1-1. 특징적요소

##### ① 웨딩사진의 등장

1900년대에 들어서 사진이 일반 대중들과 친숙해졌으나 일제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에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웨딩사진이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지식인들에게는 사진이 보급되어 웨딩당일에 기념하여 예식현장에서 촬영되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특히 영친왕과 이우왕, 덕혜옹주의 웨딩사진이 차례로 신문상에 보도 되었으며 왕족이 결혼을 기념하여 촬영한 웨딩사진이 대중들에게 보여짐으로써 결혼식 후 이를 증명하는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임을 알리게 되었다. 이시대의 웨딩사진을 보면 원판사진, 웨딩스냅사진, 웨딩리허설사진으로 뚜렷하게 구분 짓기가 쉽지 않음을 보았을 때 웨딩사진이 상품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1-2. 표현요소

##### ① 조명

스튜디오에서 인공조명 아래에서 촬영된 [사진1]과 [사진2]을 제외하고 사진이 야외에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인공조명의 사용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 ② 렌즈 및 앵글

렌즈의 밝기가 어두워 되도록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하였다는 것을 [사진5]에서 사진 배경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 사람들의 모습이 아웃포커싱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앵글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레벨(Eye level)로 자연스럽게 부담감이 없으며 안정감이 있다.

##### ③ 포즈

포즈는 다양하지 못하고 신랑·신부 및 하객 모두가 카메라 쪽을 향해 서서 경직된 포즈가 주를 이룬다. 이는 렌즈의 문제와 필름의 감광재의 문제로 노출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④ 배경 및 소품

배경은 [사진1]과 [사진2]는 사진 전문 배경지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사진은 다양한 배경을 보여주는데 아직 결혼식장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곳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품으로는 부케가 눈에 띄인다.



[사진1] 이우왕자의 웨딩사진



[사진2]영친왕의 웨딩사진



[사진3]덕혜옹주의 웨딩사진



[사진4] 1920년대 웨딩사진(최진은,2007발췌)



[사진5] 1910년경의 웨딩사진 (민충식사진)



[사진6] 1934년의 웨딩사진 (이영의 결혼식)

#### 4-2. 1951년~1970년(웨딩사진의 상품화)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의 웨딩사진은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 원판사진의 상품화되어 가는 시기로 기술적 발달은 아직 미비할 때 이다.

##### 4-2-1. 특징적요소

##### ① 원판사진의 상품화

한국전쟁이후 예식장의 보급화로 원판사진 촬영이 일반화 되었던 시기로 웨딩사진이 상품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초창기 웨딩사진의 경우 단순한 상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몇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하였으며 더욱이 1960년대 한국의 경우 사진관의 명함판 사진 한 장으로도 결혼의 증명자료로 사용되었다(김병목, 1996).

당시의 웨딩사진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기사1]우정이 만들어준 결혼사진

동아일보 1964.01.14 기사 6p

결혼한 지 반년이 되도록 아직 결혼사진을 찾지 못했다. 결혼 당시 한말에 이 사원 하던 쌀값이 요즈음은 사오원으로 뛰었는데 반해 오히려 수입은 줄어드는 형편이라 결혼 직후 장모님이 사진값으로 보내준 천원을 마침 달려든 빚쟁이의 성화에 못 이겨주고 난 후 오늘날까지 그만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어느날 다정한 아내의 친구 한 사람이 우리 신혼가정을 방문했다. 신혼생활의 재미를 물으며 쌓였던 정으로 애기의 꽃을 피우더니 별안간 생각난 듯 아내에게 결혼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다. 답변에 궁한 아내의 망설이는 표정이 깃든 얼굴을 힐끗 보고 나는 그만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내 앞에 여섯달전에 찍은 우리들의 사진을 내놓으며 “전 영 결혼사진을 못 찾을 것 같았는데 이젠 어머니께 편지하게 됐어요”하며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주례목사와 양가 친척들의 웃음 뿜 얼굴들과 나와 아내가 부자연스레 팔을 끼고서 있는 사진을 보며 들은 그날을 느끼며 밝은 웃음을 피웠다. 숨길 줄 모르는 아내이기에 사실을 말한 그녀에게 친구가 동정의 뜻으로 사진 값 백원을 내놓은것을 뿌리치며 거절해도 기어이 팽개치듯 내던지고 갔다는 것이다.

(하연구 경주시황오리이 육철 신라여관 내 27세 노동)

### [기사2]결혼식 날의 인상

경향신문 1964.02.04 p8

(생략) 주례의 마지막 말씀은 「캉프르」 주사 바로 그것이었다. 그말만은 또렷이 귀에 들어 왔다. “이젠 살았구나”하는 속마음. 즐거운 비명이라도 토할것만 같았다. 삽시간에 피아노 소리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두 주인공, 그리고 가지각색의 꽃과 테이프를 뿌려주는 인파, 사진촬영....(생략)

(제주도 3동 1동 83. 정평조. 25세 주부)

1964년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로 두 사람 모두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고한 글로 보인다.

[기사1]에서 ‘주례목사와 양가 친척들의 웃음 띤 얼굴들과 나와 아내가 부자연스레 팔을 끼고서 있는 사진’의 내용과 [기사2]에서 주례 후에 퇴장을 하고 사진촬영을 했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결혼식 후 오신 하객들과 같이 촬영하는 원판사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1]에서 ‘신혼생활의 재미를 물으며 쌓였던 정으로 애기의 꽃을 피우더니 별안간 생각난 듯 아내에게 결혼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에서 결혼식을 하고난 신랑·신부에게 당연한 듯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당시의 원판사진이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쌀값이 사오원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사진가격은 백원이라고 기재 된 것으로 원판사진의 가격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두 기사 모두 결혼식 후 원판사진을 촬영한것이 자연스럽게 기재 된 것을 보아 결혼식 후에 촬영하는 원판사진이 일반 대중들에게 의식 속에 정착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4-2-2. 사진표현요소

##### ① 조명

조명은 1950년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 ② 렌즈 및 앵글

렌즈 및 앵글 또한 1950년대 이전과 변함이 없다.

##### ③ 포즈

신랑·신부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서서 촬영한 사진이 주를 이루

었다. 현재의 원판사진포즈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 ④ 배경 및 소품

배경은 초기 예식장의 형태의 배경으로 보이며 1950년 이전과는 다르게 화환과 같은 소품으로 예식장소를 꾸민것을 볼 수 있었다.



[사진 7] 1953년 문00 노00



[사진 8] 1950년대 원판사진(최은진, 2007 발취)



[사진 9] 1950년 박정희 육영수



#### 4-3. 1971년~1990년(웨딩사진의 일반화)

1971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웨딩사진의 산업화와 더불어 대중들의 관심이 증폭된 시기이다.

#### 4-3-1. 특징적요소

##### ①웨딩스냅사진의 상품화

이시기부터 웨딩사진 중 원판사진은 더욱 일반화 되어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촬영하였으며, 웨딩스냅사진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의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에 관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기사3]혼사가이드

(매일경제 1971.04.10 p7)

...(생략) 예식장비와는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사진대와 답례품대. 사진 원판의 경우 4절판 1커트에 3천 5백원. 스냅사진은 컬러가 20장에 6천5백원, 흑백은 2천원 정도(생략)....

##### [기사4]결혼준비가이드

(매일경제 1971.10.07 p7)

...(생략) 가족사진, 친구사진, 스냅사진을 합치면 사진 값으로 1만 3천원(생략)....

##### [기사5]결혼시즌 활짝

(매일경제 1972.09.23 p7)

...(생략) 예식장이 지정한 사진관에선 보통 사진 한판에 3천원을 받는다.(생략)....

##### [기사6]예식장 이용과 그 비용안내-결혼식은 간소하게

(매일경제 1979.03.14 p8)

...(생략) 그 다음 예식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진대금인데 컬러 1조 2장이 1만2천원으로 5조를 기본으로 할때 6만원이 소요돼 총비용이 13만

원선에 이르게 된다. 그 외에도 피아노 사용료5천원, 주례사늑음 5천원, 스냅사진(필름1통) 1만3천원등 추가로 지출해야할 항목들이 따라다닌다(생략).....

#### **[기사7]예식장 바가지 시즌맞아 협정료 무시...잔치기분 잡쳐**

(동아일보 1979.04.02 p7)

...(생략) 고씨는 예약당시 사진은 규정금액대로 한 장에 1만2천원씩 4장만 찍고 (생략)...

#### **[기사8]예식장25만원·호텔 40만원선 예식비 평균 60%인상**

(매일경제 1980.03.15 p8)

...(생략) 또한 사진대는 컬러 1조당 1만2천원에서 1만9천원, 폐백실 사용료도 1만 2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0~58%가 인상됐다...(생략)...예식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진대금인데 컬러 1조 3장씩 5조를 기준으로 할때 9만 5천원이 소요되므로 총비용은 21만원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피아노 사용료 6천원, 주례사늑음 3천원, 스냅사진(필름1통)1만6천원등 추가로 지출해야할 (생략).....

#### **[기사9]결혼식 사진 값 너무 비싸**

(매일경제 1980.08.25 p8)

...(생략)예식장서는 한쌍이 결혼할 때 3~5조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하루에도 몇 쌍씩 촬영, 일반 사진관에서 한달에 겨우 1~2회찍을 사진량을 하루에 소화시키고 있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식사진은 다량취급의 경우가 많아 필름수정등에서 현상소의 특혜까지 받고 있다는것.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예식업협회측은 일반 사진관 사진값인상에 편승, 이용이 가장 많은 예식사진(8×10인치)을 1만4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8%나 인상했었다 (생략)....

#### **[기사10]의례업소 수수료 한도액 결정**

(동아일보 1981.05.11 p11)

...(생략) 사진(3장)2만1천원, 스냅사진(20장)1만5천원 (생략)...

**[기사11]철맛은 예식장 횡포**

(경향신문 1981.05.11 p7)

...(생략) 1종3장 기준에 1만8천원의 사진값 (생략)....

**[기사12]예식장 톨비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1981.09.17 p11)

...(생략) 사진은 컬러가 8×10 3장(1조)에 2만1천원, 스냅사진의 경우 3×4 20장에 앨범포함 1만 5천원 (생략)...

**[기사13]결혼시즌 예식비용 얼마나 드나**

(매일경제 1984.09.18 p9)

...(생략) 사진=컬러(8×10)1조3매에 2만1천원 통상 5~6조를 찍는다. 스냅=3×4 인치 20매에 1만5천원(생략)....

**[기사14] 혼수시장에 분 알뜰바람**

(매일경제 1984.12.14 p11)

...(생략) 사진1조 3매 2만1천원(보통5~6조 10만~12만원) 스냅사진 20매에 1만5천원 (생략)...

**[기사15] 기념사진 · 드레스가 합정**

(경향신문 1987.04.21 p11)

...(생략)1장당 2만 1천원씩 하는 기념사진을 8장 찍기로 계약했으나 나중에 사진을 찾으러 갔더니 3장이나 더 찍고 스냅사진도 1장(3만원)더 만들었다며 9만여원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는것(생략)...

신문상에 웨딩사진에 관해서 여러차례 기사가 나왔는데 그만큼 대중들이 관심있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웨딩사진에 있어서 사진과 스냅사진으로 나누어서 기재한것이 눈에 띄이는데 여기서 사진은 원판사진을 가리키고

있다. [기사3]에 나왔듯이 1971년쯤부터 웨딩스냅사진이 상품화 되어 판매되기 시작 하였으며 이는 35mm소형카메라와 플래시(Flash)가 한국웨딩시장에 등장함을 추정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웨딩스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좋은 35mm판 소형카메라와 플래시(Flash)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래 스냅사진은 '납아채다'는 의미로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순식간에 인물들을 촬영하는것을 뜻하는 말로 움직이는 물체의 상을 빠른 속도로 촬영하는것을 말한다. 연출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사체를 실감나게 또는 인상적으로 찍는 기법으로 1930년대 35mm판 소형카메라가 개발되면서 다큐멘터리에 사용되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 포토저널리즘의 확산과 현장감 있는 사진을 신문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서서히 국내웨딩시장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플래시(Flash)는 1931년 미국 MIT대학원생이던 애저튼이 스트로보 스코픽 라이트를 개발하여 1936년에는 10만분의 1초로 Humming birds를 촬영하는데 성공하였다. 1949년부터 휴대용 전자 플래시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위해 개발된 인공조명기구 중 가장 휴대가 간편하고 어떤 조건하에서도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는 것이 플래시(Flash)이다(안장현, 1997). 플래시(Flash)는 태양광의 빛깔과 비슷한 분광분포를 갖고 있어 컬러사진 촬영에서 색의 재현성이 매우 우수하며 플래시 불빛은 섬광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도 정지시켜 촬영 할 수 있어 순간을 포착하는 웨딩스냅사진 촬영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플래시가 보급된 후에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의 신랑·신부의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여 촬영해 결혼식 동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었다.

## ② 컬러사진의 등장

1854년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의사인 H.L.F 헬름홀츠와 1861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J.C.맥스웰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가색법에 의한 컬러사진의 원

리를 확립하였다. 이후 컬러사진이 처음 상용화 된 것은 1935년 코닥에서 컬러필름이 나오면서 부터이지만 [기사3]을 보았을 때 한국웨딩사진시장에 쓰이기 시작한것은 1970년쯤으로 보이며 원판사진은 70년대 초반까지는 흑백사진이 활용되지만 [기사6]에 보면 1979년에는 컬러사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원판사진의 가격은 1971년에 1장당 3천5백원에서 1987년에는 1장당 2만1천원으로 대략 7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1조에 3장씩 8×10inch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6조를 기본으로 촬영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딩스냅사진의 가격은 1971년에 컬러가 20장에 6천5백원에서 스냅사진 컬러20매에 1만5천원으로 대략2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흑백은 1970년 초 기사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의 기사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흑백 웨딩스냅사진은 상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0] 박00 문00의 원판사진 (1971.05.11.)



[사진 11] 박00 문00의 흑백웨딩스냅사진 (1971.05.11.)



[사진 12] 박00 문00의 컬러웨딩스냅사진 (197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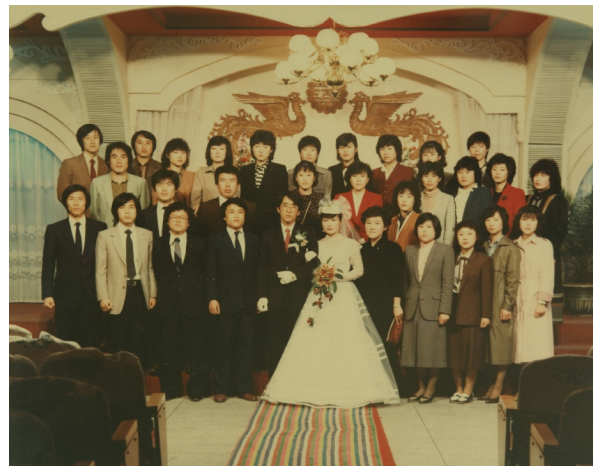
[사진 13] 이00 문00의 원판사진 (1978.01.15.)



[사진 14] 이00 김00의 원판사진 (1979.04.07.)



[사진 15] 이00 김00의 웨딩스냅사진 (1979.04.07.)



[사진 16] 이00 문00의 원판사진 (1983.03.06)



[사진 17] 이00 문00의 웨딩스냅사진 (1983.03.06.)

위의 사진들에서도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971년에 촬영된 [사진12]과 [사진13]를 보면 같은 사람의 웨딩스냅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흑백과 컬러사진 두 가지로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1970년 후반에 촬영된 [사진13]과 [사진14]의 원판사진을 보면 각각 흑백사진과 컬러사진으로 촬영된것을 보았을 때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

#### 4-3-2. 사진표현요소

##### ① 조명

자연광에 의존하지 않고 예식장 전면 상단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원판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스냅은 휴대용 플래시를 이용하였다. 대부분이 순광으로 촬영된 것을 볼 수 있다.

##### ② 렌즈 및 앵글

렌즈는 표준렌즈를 사용하였으며 앵글도 아이레벨(Eye level)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아이레벨을 가장 많이 보이는 이유는 웨딩사진의 순수사진적

인진 면보다는 다큐멘터리적인 면의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대중들에게 사진기가 대중화되기 전으로 사진의 미적요구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③포즈

원판사진에서의 포즈는 이전 시대와 다르지 않았으나 웨딩스냅사진의 포즈에 있어서는 정형화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 ④배경 및 소품

배경은 이전 시대에 비해 봉황이나 학과 같은 문양이 단상 위에 그려져 화려해 졌으나 예식장의 보급으로 대부분 비슷한 문양으로 획일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4. 1991년~2000년(웨딩사진의 전문화)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웨딩사진의 전문화 시대로 웨딩리허설사진의 상품화와 더불어 웨딩전문스튜디오의 등장이며 다양한 사진표현이 시도된다.

### 4-4-1. 특징적 요소

#### ①웨딩리허설사진의 상품화

1990년대에 들어서 카메라가 대중소비시대를 맞았다. 한때 부의 척도로까지 대우 받았던 카메라는 일반사람들의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되고 있었다. 콤팩트 카메라<sup>10)</sup>의 출연으로 카메라의 기능이 자동화 되어 굳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화 되었다. 당시 컴

10) 거리의 조절, 빛의 노출 따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 카메라.

팩트카메라의 내수시장규모가 1천억에 달할 만큼이었다.<sup>11)</sup>

이처럼 누구나 사진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웨딩사진은 일반인도 얼마든지 촬영 가능하게 되었다. 결혼식날의 기록만으로는 특별한날을 기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당시 90년대에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여유가 있었던 대중들은 나만의 사진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에 맞춰 웨딩사진업계에서는 웨딩리허설촬영을 상품화 시킨다.

당시의 웨딩리허설촬영에 관한 기사를 살펴 볼 수 있다.

#### **[기사16] 결혼도 규격화 시대**

(한계례 1992.05.20 p17)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결혼산업 중 결혼풍속도 변화에 두드러진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진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연출사진·비디오 촬영’분야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신부들로부터 “연출사진 찍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야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됐을 정도다. 이름도 생소한 ‘연출사진’은 중산층 이상의 신랑·신부에게 최근 1~2년 사이에 결혼 필수 품목으로 등장해버렸다.

주말뿐 아니라 요즘은 주중에라도 창경궁, 올림픽공원, 도산공원, 광릉수목원 등 경관이 좋은 장소에서는 하얀드레스와 연미복을 화려하게 갖춰 입은 신랑·신부들이 밸런트마냥 서로 안고 기대고 웃으며 찍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생략)

‘연출사진’은 고궁 등에서 신랑·신부의 웃는 모습을 연출해 11×13크기, 즉 앨범 크기의 큰 사진으로 5여장을 뽑아 한권의 장정이 잘 된 기념앨범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한 권에 최고 1백 50만원에서 1백 20만원, 1백만원, 80만원, 6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개발돼 있다.....(생략)

결혼 연출사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올해 만도 서울에 수십곳이 새로 생

---

11) 매일경제 1988.05.20 p16

겨났으며, 가족 사진업체도 각기 뛰어들어 결혼연출사진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기사17] “예비부부=돈”업계,과소비 부추겨**

(한계레 1992.05.20 p18)

결혼전문 상담가인 강지아(우이엠텍 대표)씨는 “요즘 결혼식은 여러 친지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비디오촬영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랑·신부 모두가 사진찍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주연모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혼수용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출사진은 꼭 찍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혼수비용은 혼수비용대로 들고 1백만 ~ 3백만원의 사진 비디오 요금만 결혼비용에 추가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셈이다.

사실 최근 신랑·신부층에서 바람을 이루고 있는 연출사진은 6~7년 전부터 대형 사진스튜디오에서 상류층 신랑·신부들을 주고객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사진업계가 시장확대를 위해 대중용으로도 상품화하면서 스스로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신랑·신부들의 수요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사18] 결혼식때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비디오세대 야외촬영 붐**

(경향신문 1993년 03.14 p17)

.....(생략) 결혼사진 가운데 야외촬영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요즘에는 3~4일전부터 충분한 여유를 갖고 촬영에 들어가는 「리허설방식」이 도입돼 예비부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방식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배경의 선택이 가능한데다 하루 5~7시간에서, 길게는 1박 2일에 걸쳐 사진의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런 「작품」이 될 확률이 높다.....(생략)

결혼사진전문 스튜디오의 경우 이 같은 야외촬영을 패키지 상품화해 첫날에는 자체 스튜디오와 서울랜드·덕수궁에서 촬영하고 밤이 되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을 배경으로 야간촬영을 마친 뒤 다음날 장흥등 가까운 교외로 나간다.

의상도 각 장소의 분위기에 맞게 웨딩드레스·파티드레스·양장예복등을 갖추 놓고 그때그때 갈아 입으며 스튜디오에서 실내촬영을 할때는 각종세트와 소파·꽃·풍선등 소품을 이용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직업모델의 패션 촬영을 방불케 한다.

야외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개발을 위해 각 스튜디오에서는 촬영이 없는날을 골라 시내 고궁이나 유명공원은 물론 주변경관이 좋은 간선도로변이나 전철역·한강고수부지와 최근 개방된 청와대 앞길등을 대상으로 장소 물색작업을 벌인다.

이와함께 각 장소의 특성과 어울리는 신랑·신부의 행복한 표정을 중심으로 친구들의 장난기 섞인 축하인사와 양가 부모들의 당부말, 두사람의 성장과정등을 성우의 나레이션까지 곁들여 1시간안팎 분량의 「결혼이야기」 영화로 만들어 낸다.....(생략)

결혼사진전문스튜디오 「포토플러스」대표 조인식씨(30)는 “결혼식 때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예술사진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만큼 사진의 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대만 등 외국에서 들어온 관습이지만 비디오세대인 젊은 층 사이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결혼사진전문스튜디오는 동승·명성·란·원·반포를 비롯, 서울 시내에만 50여곳으로 40쪽 분량의 앨범 1권에 40-50만원, 비디오촬영까지 곁하면 1백만원선을 최소가격으로 잡고 있으나 「예술성」을 가미하는데 따라 가격이 올라가 상한선을 정하기 어렵다

[기사16]과 [기사17]은 1992년, [기사18]은 1993년도에 기재된 기사로써 명명된 명칭은 다르나 웨딩리허설사진에 대한 설명이다. 3개의 기사를 통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웨딩리허설사진이 대중화 된지 1~2년 사이로, 결혼필수품목으로 소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야외에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웨딩리허설촬영의 가격이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18]을 통해 웨딩리허설촬영의 형태가 일본·대만에서 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웨딩리허설촬영이 대중화 된 것은 남과는 다른 개성의 추구하고 스스로 결혼의 주체가 되기를 여겼던 그 당시 세대의 성향도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 ② 비디오시장의 확대

웨딩사진시장은 사진에서 영상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71년~1990년에도 비디오촬영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붐이 일어났다.

[기사16], [기사18]에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기사18]에서 ‘각 장소의 특성과 어울리는 신랑·신부의 행복한 표정을 중심으로 친구들의 장난기 섞인 축하인사와 양가 부모들의 당부 말, 두 사람의 성장과정 등을 성우의 나레이션까지 곁들여 1시간안팎 분량의 「결혼이야기」 영화로 만들어 낸다’는 기사 내용으로 이전의 결혼식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비디오 상품과 달리 예술성과 개성을 첨부한 비디오 상품으로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

## ③ 웨딩전문스튜디오 등장

이 후 90년 중 후반으로 갈수록 웨딩리허설촬영의 장소에 변화가 생긴다. 야외에서 주를 이루던 촬영이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실내셋트장으로 촬영장소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사가 있다.

### [기사19] 자유로에 웨딩전용스튜디오

(경향신문 1996.05.02 p13)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웨딩전용스튜디오가 자유로변에 문을 열었다....(생략)...스튜디오는 1,000평 대지위에 연건평 350평 규모의 촬영소 건물과 800평크기의 야외공원으로 이뤄져 실내·외에서 웨딩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돼있다. 특히 2,000여그루의 각종 나무들을 심은 야외공원에는 중견작가들의 조각품, 인공폭고, 정자등 다양한 조경물들이 들어서 있어 웨딩작품을 위한 야외촬영지로 손색없다(생략)....

## [기사20] 결혼사진 새 풍속도 「백년의 추억」 다양한 연출

(경향신문 1994.03.14 p13)

주로 예식장에서 인물위주로 찍던 ‘기념사진’의 수준이 고작이던 결혼사진이 최근에는 작품성을 가미, 기발한 아이디어와 분위기 연출로 점차 다양화·개성화돼가고 있는것.

주말에 고궁이나 공원에서 다정스레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신랑·신부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요사이에는 이러한 야외촬영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스튜디오의 노장원(33)씨는 “스튜디오촬영의 경우 광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다 여러 가지 이미지 작업이 용이해 점차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특히 스튜디오내에 전통가옥, 나무로 된 창문문양, 영국풍의자와 같은 조형물등으로 꾸민 신혼부부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안경, 부채, 플루트등 웨딩드레스와 텍시도에 잘 어울리는 소품을 활용, 광고사진처럼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은 신랑·신부도 많다 (생략)....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실린 기사로 실내 셋트장이 스튜디오 안에 주요 셋트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모든 촬영을 하였던 인물스튜디오에서 웨딩전문스튜디오로의 분업화를 가지고 왔다.

### ④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 구성의 규격화

1990년대에도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은 촬영 되었으며 원판사진은 이전까지는 5·6조가 기본이던 것이 점차 10조가 기본이 되어 전국적으로 11\*14(inch)의 크기의 규격화된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3권의 앨범을 합쳐 40~50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표 4] 원판촬영 구성표

1.	신랑·신부와 주례해주신 선생님	6.	신랑·신부와 신부측 직계가족 또는 연출사진
2.	신랑·신부	7.	신랑·신부와 친구들
3.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8.	신부가 친구에게 부케던지기
4.	신랑·신부와 양가 친척	9.	폐백옷을 입은 신랑·신부
5.	신랑·신부와 신랑측 직계가족 또는 연출사진	10.	폐백옷을 입은 신랑·신부와 신랑측부모님

웨딩스냅사진은 이전까지는 매수나 필름의 롤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앨범으로 규격화하여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결혼순서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필수로 촬영하여 앨범이 만들어졌다.

[표 5] 웨딩스냅촬영 구성표

1.	신부의 신부대기실에서의 장면	8.	신랑·신부가 혼인서약 장면
2.	신랑과 양가 부모님의 손님 맞이 장면	9.	주례사 듣는 장면
3.	양가 어머니의 화촉점화 장면	10.	신랑·신부의 양가부모님께 인사 장면
4.	신랑입장 장면	11.	신랑·신부의 퇴장 장면
5.	신부와 신부아버지의 입장 장면	12.	신랑·신부의 폐백 중 시부모님께 밤, 대추를 받는 장면
6.	신랑이 신부의 손을 처음 잡는 장면	13.	신랑·신부의 폐백 중 시어른분들께 절하는 장면
7.	신랑과 신부의 맞절 장면	14.	신랑·신부의 폐백이벤트 장면

4-4-2. 사진표현 요소



[사진 18] 방00 장00의 웨딩리허설사진 (1993년)



[사진 19] 백000웨딩스튜디오 샘플 리허설사진 (1997년)



[사진 20] 백000웨딩스튜디오 샘플 리허설사진 (1998년)



[사진 21] 백0000웨딩스튜디오 샘플 리허설사진 (1999년)





[사진 22] 방00 장00의 원판사진 (1993년)

### ① 조명

웨딩리허설촬영은 1990년 초반에는 야외에서 촬영되었으나 1990년 후반으로 갈수록 실내 셋트장과 야외를 같이 촬영하였다. 야외에서 촬영된 사진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 되었으나 실내 셋트장을 이용한 사진은 인공조명이 쓰였다. 인공조명은 대부분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그늘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표현 될 수 있는 반사광이나 확산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 인 만큼 노출을 오버하여 촬영하여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끔 하였다.

### ② 렌즈 및 앵글

1990년대 초반에는 아웃포커스나 인포커스를 사용하여 인물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 앞에 소프트 필터를 사용하여 몽환적인 느낌을 주었다. 앵글은 원판사진과 웨딩스냅사진에서 아이레벨(Eye level)을 사용한 것과 달리 웨딩리허설사진에서는 아이레벨(Eye level), 로우앵글(Low Angle), 하이앵글(High Angle)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촬영하였다.

### ③ 포즈

웨딩리허설촬영에서는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이 다양해 보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야외에서의 촬영된 사진은 멀리서 전신을 촬영한 사진으로 인

물보다는 포즈를 통해 사진의미를 완성했으며. 실내에서는 인물의 표정에 중심을 둔 사진으로 포즈가 단순화됨을 알 수 있다. 원판사진은 그전 시대와 동일한 포즈로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④ 배경 및 소품

웨딩리허설촬영의 배경은 야외와 실내 셋트로 나뉠 수 있는데 실내 셋트장은 각 웨딩전문스튜디오에 따라 셋트장의 모양이 다름을 볼 수 있으며 단색의 배경지가 주를 이룸을 볼 수 있다. 소품은 조화부케, 깃털, 모자, 코사지등 원판사진이나 웨딩스냅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품이 많이 생겨났다.

#### ⑤ 기타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촬영기법뿐만 아니라 인화방식에 있어서도 마스킹(Masking)<sup>12)</sup>, 토닝(Tonig)<sup>13)</sup>를 사용하여 전에 비해 화려함을 가미했다. 이는 웨딩사진전문 현상소들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수동컬러 확대기나 시트프로세서(Sheet-processor)를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였다(이성규, 2004). 웨딩앨범의 편집 형식도 인화하는 과정에서 한 장의 인화지에 여러 번 노광을 주어 여러 개의 포즈의 사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편집하였으며 스티커로 제작된 레터링<sup>14)</sup>을 사진위에 붙여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는 웨딩리허설사진시장의 기술적 발전으로 보인다.

### 4-5. 2001년~2010년(웨딩사진의 디지털화)

---

12) 사진제판의 색분해 공정 중 농담(濃淡)·색조(色調)를 수정할 때 사진화상(寫眞畫像)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수정하는 방법

13) 흑백 사진화상의 은 일부를 은 화합물, 다른 금속 혹은 금속 화합물, 색소 등으로 바꾸어 화상의 색조를 조절하는 것. 금조색, 셀렌 조색, 황화 조색 등이 대표적이다. 화상의 산화에 저항력을 부여하여 견뢰화하는 수단으로도 기여한다.

14)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자를 도안하는 일. 또는 그 문자.

2000년에 들어서 원판사진, 웨딩스냅사진, 웨딩리허설사진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디지털화로 웨딩시장에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 4-5-1. 특징적요소

##### ① 디지털화로 인한 웨딩사진의 변화

2000년 이후로는 한국웨딩사진시장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디지털의 발달이다. 디지털카메라와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sup>15)</sup>의 개발은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화 함으로써 더욱 웨딩사진산업이 발달하였다.

최초의 디지털카메라는 1975년 미국 코닥의 개발자였던 스티브 새슨(Steve Sasson)이 발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최초의 디지털카메라는 일본 소니가 1981년에 출시한 마비카(MAVICA)를 꼽을 수 있다. 이후 1988년 일본 후지필름이 발표한 'DS-1p', 1990년다이캠이 발표한 '모델1', 1994년 카시오가 발표한 'QV-10등이 연이어 출시되었다. 그러나 사용이 불편하고 높은 금액 때문에 대중화 되지 못하다가 기술의 발전의 발전을 이루어 2000년에 들어와서 일반화 되었다(나옥희, 2011). 이런 기술발달로 인해 한국웨딩사진시장에서는 웨딩리허설촬영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특히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의 개발은 기존에 노출오버 촬영으로 피부톤을 하얗게 맞추고 베일이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신랑·신부의 결점을 보완하던 것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촬영하고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을 이용하여 보정하는것이 신랑·신부에게 더욱 만족감을 주었으며 사진의 편집에 있어서도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방식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음에 따라 앨범 구성이 다양해지고 앨범 안에 들어가는 사진의 수가 많아짐을 볼 수 있었다.

---

15) 사진 데이터를 PC로 수정, 가공하는 것. 소프트웨어로는 미국 어도비 시스템즈 사의 포토샵(Photoshop)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에 부착되는 포토리터치가 많이 있다.

## ②실내셋트장확대로 인한 웨딩리허설사진의 변화

90년대 초 야외에서만 촬영하던 시기에서 중 후반에 이르러 웨딩전문스튜디오의 등장과 함께 실내 웨딩 셋트장이 생겨났다. 하지만 90년대에는 야외에서의 촬영의존도가 높은편이었다. 2001년 이후에 들어서서 날씨에 따라 영업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전문웨딩스튜디오들은 고민하던 중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내 셋트장에 촬영하여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을 통한 변화를 주어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처럼 다양해 보이려 했다 그러나 포토리터칭(photo-retouching)만으로는 다양한변화가 힘들자 화려한 배경을 위해 실내 셋트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실내 셋트장의 확대는 리허설촬영의 구도까지 변화를 주었는데 주로 야외에서 촬영 하던 1990년대에는 넓은 화각으로 포즈중심적인 사진을 촬영했으나 실내 셋트장에서 주로 촬영하는 2000년대에는 인물중심의 사진이 주를 이루었다.

### 4-5-2. 사진표현 요소



[사진 23] 오00 이00 리허설촬영앨범 (2001년)



[사진 24] 한00 마00 리허설촬영앨범 (2004년)



[사진 25] 박00 박00 리허설촬영앨범 (2007년)



[사진 26] 아00웨딩스튜디오 샘플리허설촬영앨범 (2008년)

### ① 조명

200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 실내 셋트장에서 웨딩리허설촬영을 하게 되어

대부분 인공광이 쓰였으며 대체로 부드러운 빛을 거의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소프트박스 내지는 형광등조명을 사용하였으며, 실내에서도 빛의 방향성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창에서 빛이 들어 오는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냈다.

## ② 렌즈 및 앵글

렌즈의 활용이 더욱 다양해졌다.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화상의 일그러짐을 이용해 시원한 앵글과 시각적 효과를 보았으며 앵글은 1990년대를 이어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여 사진의 다양함을 증대 시켰다.

## ③ 포즈

야외에서 촬영하던 1990년대와 달리 대부분 실내에서 촬영한 2000년대에는 인물중심적인 촬영으로 상체 위주의 포즈가 주를 이루었다.

## ④ 배경 및 소품

배경은 단순한 배경지를 넘어서서 인테리어적인 셋트장으로 변모하여 화려한 의자나 책장, 큰화병, 새장 등으로 꾸며진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소품의 사용도 더욱 다양해 졌으며 특히 화려한 모자와 같은 웨딩전용소품이 생긴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대별로 웨딩사진을 분석해 보았다. 웨딩사진은 그 당시의 기술성,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며 신랑·신부의 결혼에 대한 기록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미에 대한 추구를 볼 수 있었다. [표6]은 1900년부터 웨딩사진의 발달사를 시대별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6] 웨딩시장의 시대별 발달사

시대 요소		1950년이 전	1950년~ 1970년	1971년~ 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 현재까지
특징		-사진의 도입  -웨딩사 진의 등장	-원판사진 의 상품화	-웨딩스냅 사진의 상품화  -컬러사진 의 등장	-웨딩리허 설사진의 상품화 -비디오시 장의 확대 -웨딩전문 스튜디오의 등장 -원판사진 과 웨딩스냅사 진 구성의 규격화	-디지털화 로 인한 웨딩사진 의 변화  -실내셋트 장 확대로 인한 웨딩리허설 사진의 변화
가 치	원판, 스냅	.	백원	원판사진- (1971년) 3천5백원 스냅사진- (1971년) 6천5백원	원판사진- 40~50만원	원판사진- 40~50만원 스냅사진- 20~50만원
	리허설	.	.	.	40~150만원	99~220만원
조 명	원판, 스냅	.	자연광이용	원판사진- 조명기구사 용  스냅사진- 휴대용 플래쉬사용	원판사진- 조명기구사 용  스냅사진- 휴대용 플래쉬사용	원판사진- 조명기구사 용  스냅사진- 휴대용 플래쉬사용
	리허설	.	.	.	야외- 자연광이용	소프트박스 ,

					실내셋트- 반사광, 확산광	형광등조명
렌즈	원판, 스냅	표준렌즈	표준렌즈	표준렌즈	표준렌즈	표준렌즈
	리허설	.	.	.	다양한 렌즈사용	다양한 렌즈사용
앵글	원판, 스냅	Eye level	Eye level	Eye level	Eye level	Eye level
	리허설	.	.	.	Eye level Low Angle High Angle	Eye level Low Angle High Angle
포즈	원판	카메라를 향한 정면	신랑·신부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한 정면	원판사진- 신랑·신부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한 정면 스냅사진- 정해진 포즈없음	원판사진- 신랑·신부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한 정면 스냅사진- 정해진 포즈없음	원판사진- 신랑·신부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한 정면 스냅사진- 정해진 포즈없음
	리허설	.	.	.	전신컷의 포즈위주	상체컷의 인물위주
배경	원판, 스냅	배경이 각자 제각기 다름	예식장 배경으로 비슷함	예식장 배경 획일화 (보다화려 함)	예식장 배경 획일화	예식장 배경 획일화
	리허설	.	.	.	야외>실내	야외<실내

	원판, 스냅	부케	부케와 화환	부케와 화환	부케와 화환	부케와 화환
소 품	리허설	.	.	.	크기가 작은 소품 (조화부케, 코사지,깃 털등)	크기가 큰 소품 (책장,화려 한 의자,큰화 병, 새장 )

## 5장. 결론 및 제언

웨딩은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회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며 웨딩사진은 표현의 절차과정 또는 의미를 기록한 사진이다.

평생 단 한번 밖에 없는 중요한 결정의 의식인 만큼 그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어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웨딩에 관한 기록을 남겼었다 현재 한국에서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기록을 남기는 정도를 벗어나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으로까지 이어져 웨딩산업에서의 비중이 점차 커져 발달하고 있다.

웨딩사진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

첫째, 웨딩사진의 출발은 초상화에서부터 그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사진이 발명되기 전 시대에는 결혼에 대한 기록을 초상화로써 남겼다. 특히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초상화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 사람 중심적인 사고는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은 욕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특정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로 사회의 지위와 부를 상징하게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특정계층이었던 귀족과 왕족이 무너지고 중산계층이 사회주류로 떠오르게 된다. 사회구성의 중심을 이루게 된 중산계층은 과거 수세기 동안 최상류층에게 독점적인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해왔던 초상화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열망은 모든 계층에 이어져 저렴한 초상 이미지 제작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림의 보조기구였던 카메라 옵스큐라에 새겨진 이미지를 화학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사진의 발명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좀 더 손쉽게 초상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그 후 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끝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진은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웨딩사진산업은 어느 한 순간에 생산자에 의해 계획되어진 산업분야가 아닌 오래전부터 결혼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하기위한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웨딩사진은 상업사진이기는 하나 그 안에서 다큐멘터리측면과 순수 사진측면의 예술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웨딩사진의 효과적인 표현 요소로는 조명, 앵글, 렌즈, 포즈, 배경 및 소품이 있다.

셋째. 한국 웨딩사진의 특징적요소를 살펴본 결과 크게 **웨딩사진의 등장** → **웨딩사진의 상품화** → **웨딩사진의 일반화** → **웨딩사진의 전문화** → **웨딩사진의 디지털화**순으로 발전되었다.

1950년 이전은 사진의 도입으로 웨딩사진이 등장하는 시대로 원판, 스냅, 리허설사진의 형식이 뒤섞여 있으며 기술적 한계로 표현요소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1950~1970년은 웨딩사진의 상품화가 처음 된 시기로 원판사진이 백원에 판매된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기술적 한계로 조명과 같은 표현요소가 자연광에 의지 하는 등 아직 예술성을 감미 시키기는 힘들었다. 1971~1990년은 웨딩사진 중 웨딩스냅사진의 상품화가 된 시기로 35mm소형카메라와 플래시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웨딩스냅 사진에서 웨딩사진의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을 볼 수 있었다. 표현요소 또한 다양해져 원판사진은 예식장에 전문 조명을 설치하여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 완성될 수 있었다. 1991~2000년은 웨딩사진 중 웨딩리허설사진이 상품화 된 시기로 스튜디오의 형태도 기존의 인물스튜디오에서 웨딩전문스튜디오로 전문화되었으며 비디오시장도 확대 되었다. 웨딩전문스튜디오의 등장으로 표현요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예식장 안에서의 사진이 아닌 다른 배경, 여유로운 시간과 자연스러운 포즈, 앵글 등으로 촬영자의 의도에 따른 사진의 표현 능력 확대가 순수예술사진적인 측면

면으로까지 발달하였다. 2001~2010년에는 기존의 웨딩사진에 디지털화가 더해져 보다 간편한 프로세스 인해 웨딩사진의 붐이 일어났으며 안정감 있는 촬영 위해 실내셋트장이 확대 되었다. 기존의 표현요소와 더불어 포토리터칭의 개발은 웨딩사진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 올리게 되어 어떠한 상업인물사진에서 보다 큰 시장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웨딩사진의 원류와 예술적인 측면, 표현요소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하였으나, 한국웨딩사진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밀하 고 폭 넓은 연구를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웨딩사진에 관한 국. 내 외 선행연구와 학술지 발표가 전무한 편이며, 국내의 선행연구 조차도 실 제 극소수 신랑·신부의 사진,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에 있 어서 객관화와 형평성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 있어 서는 한국웨딩사진에 관한 폭 넓고 정확한 연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안장현, 1997, 『사진으로 배우는 사진촬영 교실』, 호영  
유경선, 1995, 사진용어사전, 미진사,  
장륙다발, 박주석역, 1991, 『사진예술의 역사』, 미진사  
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에, 1993, 정진국역, 『세계사진사』, 까치  
조셉V아셀리, 김수용 역, 1986, 『영화술』, 영화진흥공사  
존 플츠, 박주석 역, 2000, 『사진에 나타난 몸』, 예경  
최봉림, 2003, 『세계사진사 32장면』, 디자인하우스  
칸바이시 츠네미치, 1993, 『예술학 핸드북』, 지성의 샘:서울  
philippe Ariés et al, 전수연 역, 2002, 『사생활의 역사』, 새물결

### <논문>

- 강선미. (2000) 韓國 婚姻儀禮의 變化에 關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所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01) 증명사진을 통해서 본 초상사진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임. (2007) 감성마케팅을 적용한 웨딩업체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윤. (2011) 웨딩서비스 회복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신뢰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 웨딩서비스 실패부문별 비교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관. (2011) 인상사진 전문화에 따른 증명사진 발전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목. (1996) 웨딩사진에 올바른 방향에 관한 연구. 慶星大學校 産業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5) 사진기 발달에 따른 사진기 렌즈의 특성 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정. (2009) 프랑스 제2제정기의 초상 사진과 사회·문화적 구별 짓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산. (2000) 초기 사진에 나타난 초상사진의 대중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나옥희. (2011) 디지털카메라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한· 중 비교연구. 동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시은. (2010) 아르놀피니부부의 초상화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제32집.p51
- 박영숙. (2011) 서울시 웨딩 업체의 입지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민주. (2007) 조엘 메이로위츠(1938~)의 1970년대 컬러 풍경 사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식. (1996) 生活 記錄 寫眞의 效果的 表現에 관한 考察. 慶星大學校 産業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엄미숙. (2011) 19세기 독일의 초기 초상사진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4(-), p7-31.
- 이경민. (2011)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성. (2003) 동·서양의 초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규. (2004) wedding photpgraphy(결혼사진)에 대한 연구. 주성대학논문집. p13, p376-378
- 이윤옥. (2009) 웨딩 소비자의 만족도 비교분석. 경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일식. (2010) 문화요소기반의 체험마케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구. (2010) 예술로서 다큐멘터리사진 미학에 관한 연구: 위커에반스를 중심으로

- 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아. (2008) 웨딩산업현황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2005) 베이비사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희. (2010) 예비신부들의 웨딩서비스에 대한인식 및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수. (1995) 일제하 민간지의 초상사진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2008)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의 초상사진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은. (2007) 우리나라 웨딩 문화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행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남희. (2010) 카메라를 든 사람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미. (2008) 일제강점기 한·일 황실사진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桂榮. (2006)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Julia Margaret Cameron)의 초상 사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이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51113471308966G](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51113471308966G)

네이버 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271>)

네이버 <http://www.naver.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ABSTRACT

### Study on expressive elements of wedding photography (Years 1990 to 2010)

Lee Yeon Ji

Dept. of wedding industry & cultural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edding is the most important ceremony in our lives since people make a family and they are socially respected through wedding, so they take wedding picture, and it has the process of expression and meaning of wedding.

People have recorded everything about wedding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 order to remember and record of wedding. Above all, wedding is once in a lifetime ceremony. Currently, wedding picture is not only recorded but also continued to works with

artistic value, so wedding industry has been developed.

However, academic explanation and terms of wedding are insufficient, and a study of wedding is nonexistent even though wedding picture has been markedly changed.

Hence I want you to understand about the origin of wedding picture, changing process of Korean wedding picture, and current status of wedding studio through this thesis.

Before photography was invented, people recorded picture drawing portrait which is accompanied by enough time and finance, so portrait, previously regarded as exclusive picture to the rich, represents social position and wealth.

However, aristocrat and royalty that are traditionally particular class collapsed as going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so middle-income bracket is emerged as mainstream society. Not only middle-income bracket, central class of society, but also people of every class have strongly desired for portrait which was monopolized by top drawer for centuries past, and it leads to invention of photography.

Joseph-Nicéphore Niépce in 1822, Louis-Jacques-Mandé Daguerre and William Henry Fox Talbot in 1837 fixed images in camera obscura chemically, and after that photography, new concept of picture, becomes known to the public.

With this and as technology is developed, it becomes easy to make portrait images, everyone can use it cheaply, and the photographic portrait takes root in the our lives.

Photography which is much easier than portrait hard to make once in a lifetime is enough to captivate public's heart, so it expands the range

of photograph to family picture and wedding picture.

Photography flowed in Korea in 1800. Before 1950, wedding picture was not popularized, and only upper class took wedding picture. Since wedding picture of royalty was reported in the paper, people have taken wedding picture to cherish their wedding.

Negative photo that people take after ceremony in order to commemorate wedding on that day was commodified and taken root between 1951 and 1970.

Between 1971 and 1990, color photo appeared and wedding snap photo was commodified in Korean wedding market. Between 1991 and 2000, wedding rehearsal shooting, wedding studio and video shooting were expanded. Since 2001, development of digital camera and photo-retouching makes complicating process simple, so Korean wedding photo industry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orean wedding photo industry is classified as service industry, and scale of industry is estimated to be around 400~500billion won a year. According to study of Korean wedding photo industry, management system, the number of photographer and prices for goods are largely categorized as capital area and provinces area due to the differences of wedding consulting's size, and the size of wedding market in seoul area is much bigger than market in provinces area.

## 부록 1. 지역별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 서울지역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스튜디오 영업 형태	스튜디오 규모	사진작 가의 수	원판가 격 (11*14 -3권기 준)	스냅가 격	리허설 촬영가 격(20p 기준)	리허설 촬영상 품구성( 20p상 품기준)	소재지
<b>g&amp;ch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80평	12명	별도판 매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210만 원	20R액 자 5*5-5 액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b>b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100평	13명	별도판 매 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22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b>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100평	20명	별도판 매 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19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b>z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80평	4명	판매하 지 않음	판매하 지 않음	13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b>gr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120평	10명	80만원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15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b>g.h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80평	9명	80만원	원판과 합쳐서 120만 원	20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b>w.r 사진관</b>	전문웨 딩스튜 디오	120평	12명	70만원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150만 원	20R액 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b>p 스튜디오</b>	전문웨 딩스튜 디오	80평	7명	별도판 매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100만 원	160만 원	20R액 자 4판액 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부산지역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스튜디오 영업 형태	스튜디오 규모	사진 작가의 수	원판 가격 (11*14 -3권기준)	스냅 가격	리허설 촬영 가격(20p 기준)	리허설 촬영 상품 구성 (20p 상품기준)	소재지
d.m 스튜디오	토탈샵	70평	3명	60만원	(원판신청시) 30만원	110만원	20R액자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b 스튜디오	토탈샵	100평	3명	50만원	(원판신청시) 20만원	110만원	20R액자, 11r액자	부산시 부산진구 초음동
L 스튜디오	토탈샵	120평	4명	50만원	(원판신청시) 30만원	100만원	20R액자, 11액자	부산 남구 대연동

광주지역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스튜디오 영업 형태	스튜디오 규모	사진 작가의 수	원판 가격 (11*14 -3권기준)	스냅 가격	리허설 촬영 가격(20p 기준)	리허설 촬영 상품 구성 (20p 상품기준)	소재지
l.g 스튜디오	토탈샵	100평	2명	60만원	(원판신청시)20만원	130만원	20R액자, 5*5-5액자, 3종set	광주시 동구 불로동
z.n 스튜디오	토탈샵	80평	1명	40만원	(원판신청시)20만원	130만원	20R액자, 갤러리 3종액자	광주시 동구 불로동
하야로 비스튜디오	토탈샵	80평	3명	40만원	(원판신청시)20만원	140만원	A,B,C, D로 상품중 선택	광주시 동구 불로동

대전지역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스튜디오 영업 형태	스튜디오 규모	사진 작가의 수	원판 가격 (11*14 -3권기준)	스냅 가격	리허설 촬영 가격(20p 기준)	리허설 촬영 상품 구성 (20p 상품기준)	소재지
i 스튜디오	토탈샵	100평	4명	50만원	(원판신청시) 50만원	110만원	20R액자, 9p갤러리액자	대전 서구 월평동
w 스튜디오	토탈샵	70평	2명	50만원	(원판신청시)50만원	130만원	20R액자	대전 서구 둔산동
m 스튜디오	토탈샵	120평	2명	50만원	(원판신청시)40만원	99만원	20R액자, 3중set	대전 중구 선화동

대구지역 웨딩스튜디오의 영업현황 조사결과표

	스튜디오 영업 형태	스튜디오 규모	사진 작가의 수	원판 사진가격 (11*14 -3권기준)	스냅 사진가격	리허설 촬영 가격(20p 기준)	리허설 촬영 상품 구성 (20p 상품기준)	소재지
l.d.j 스튜디오	토탈샵	150평	5명	40만원	(원판신청시)50만원	160만원	5개중고객이 선택할 수 있음	대구시 중구 대봉1동
i 스튜디오	토탈샵	100평	3명	별도판 매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100만원	120만원	20R액자, 작은 액자 2개	대구시 중구 대봉1동
m 스튜디오	토탈샵	100평	5명	별도판 매하지 않음	원판과 합쳐서 60만원	150만원	20R액자,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부록 2

연구 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웨딩사진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서명: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진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12년 6월 30일

이름: 최동화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연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진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12년 5월 30일

이름: 방성환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연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진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12년 5월 30일

이름: 마명덕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연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진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12년 5월 30일

이름: 이연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연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건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24년 5월 30일

이름: 노응주 서명: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근지 서명: 

##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국내 해당사건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수집된 사진은 논문 연구에 쓰이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2024년 5월 30일

이름: 이근영 서명: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이근지 서명: 